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의 메시지의 연관성: 하박국의 불평과 야웨의 답변을 중심으로*

김래용(협성대)

1. 서론

나훔서와 하박국서와 스바냐서는 연대적으로 주전 7세기의 작품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12소예언서/12예언서에서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의 자리에 연속적으로 배치되었고 각각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해 주전 620년 전후의 역사적 배경을 공통으로 가진 3개의 예언서가 각각 3개의 장이라는 짧은 분량(47절, 56절, 53절)으로 구성되어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12소예언서에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순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러한 독특함으로 인해 12소예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3권의 예언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게 되었다.¹

* 이 연구는 2024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4-0003).

1 12소예언서와 관련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위하여 Paul R. House, *The Unity of the Twelve* (JSOTSup 97; Sheffield: Almond Press, 1990); James D. Nogalski, *Literary*

하우스(Paul R. House)는 12소예언서의 구조를 3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나훔서와 하박국서와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다룬다. 그는 12소예언서가 3개의 주제(죄, 벌, 구원)에 관심하는데, 처음 6권(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다서, 요나서, 미가서)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의 죄를 다루고, 주전 7세기 예언서인 3권의 책(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은 이들의 죄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다루며, 마지막 3권의 책(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다고 보았다.²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가 모두 심판이라는 주제와 관련된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하우스는 최종 형태인 12소예언서의 문학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장르, 성격묘사, 주제, 줄거리의 흐름)을 고찰했는데, 특별히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에 이러한 유형(types of unity)이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그는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가 하나의 유닛을 구성하고,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주제(임박한 혹은 성취된 심판)에 관심하며, 교대 화자(alternating speakers)를 활용하여 언어적 흐름과 주

Precursors to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James D.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8;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James W. Watts and Paul R. House(eds.), *Forming Prophetic Literature* (JSOTSup 23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James D. Nogalski and Marvin A. Sweeney(eds.),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SBLSS 15;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f(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Rainer Albertz, James D. Nogalski, and Jakob Wöhrle(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BZAW 433; Berlin: Walter de Gruyter, 2012); Jason T. LeCureux, *The Thematic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 (HBM 4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2); James D. Nogalski, *The Book of the Twelve and Beyond: Collected Essays of James D. Nogalski* (SBLAL 29; Atlanta: SBL Press, 2017); 박경철, “12예언서 연구의 최근동향”, 「신학사상」 147집 (2009년), 7-36;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나는 12예언자」 (서울: 한국기독교학회출판부, 2013); 박경철, “12예언서의 최종형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3집 (2017년 1월), 11-36; 구자용, “12 소예언서의 이방민족들-이방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1집 (2019년 3월), 54-91 참조.

2 Paul R. House, 윗글, 63-110.

요 주제를 구성했다고 보았다.³ 노갈스키(James D. Nogalski)도 하우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는 12소예언서가 정교하게 편집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면서 캐치워드(catchword)를 예로 들었다. 한 책의 끝과 인접한 책의 시작이 종종 중요한 캐치워드를 공유하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편집 활동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다.⁴ 특별히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와 관련하여 노갈스키는 나훔서의 종결 단락 3장 1-19절과 하박국서의 시작 단락 1장 1-17절의 캐치워드, 그리고 하박국서의 종결 단락 3장 1-19절과 스바냐서의 시작 단락 1장 1-18절의 캐치워드의 분석을 통해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가 편집자에 의해 현재의 최종 형태가 되었다고 보았다.⁵ 또한 노갈스키는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의 내적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⁶ 첫째로 스바냐 1장 2절-2장 3절에 2개의 층이 발견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과 관련된 층은 초기에 형성되었고 우주적 심판과 관련된 층은 후대에 형성되었으며, 후자는 12소예언서의 신명기 역사적 말뭉치를 확장된 말뭉치와 연결시킨다. 둘째로 스바냐 1장 2절-2장 3절의 우주적 심판의 틀 속에서 놓인 민족에 관한 심판의 패턴은 나훔 1장과 하박국 3장과 유사한데, 이러한 3개의 본문 모두 요엘의 언어를 반영한다. 셋째로 하박국 3장 16b절은 유다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이 스바냐서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하박국서와 스바냐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 이들과는 달리 크리스텐센(Duane L. Christensen)은 나훔서와 하박국서의

3 Paul R. House, "Dramatic Coherence in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James W. Watts and Paul R. House(eds.), *Forming Prophetic Literature* (JSOTSup 23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95-208.

4 James D. Nogalski, *읽기* (1993. 7), 17.

5 *읽기*, 40-49.

6 *읽기*, 198-199.

스타일과 메시지를 분석하여 2개의 책을 한 묶음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나훔서와 하박국서가 현재의 정경적 형태에서 볼 때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나훔서의 3개의 장과 하박국서의 3개의 장을 합한 6개의 장을 신정론의 문제를 중심으로 양쪽에 신 현현의 시와 비웃음의 노래가 배치된 교차대구법 구조로 구성하였다.⁷ A 신 현현의 시(나 1장), B 니느웨에 대한 비웃음 노래(나 2-3장), X 신정론의 문제(합 1장), B' 사악한 자에 대한 비웃음 노래(합 2장), A' 신 현현의 시(합 3장). 에버슨(Joseph A. Everson)은 하박국의 정경적 위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박국서가 니느웨의 멸망을 강조하는 나훔서의 뒤에 배치되고,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강조하는 스바냐서의 앞에 배치되어 혼돈이 지배하는 시대를 회상케 하면서, 특별히 독자들에게 아웨의 주권이나 의로움이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절망하지 말라는 권고를 준다고 보았다.⁸

이처럼 학자들은 나훔서와 하박국서와 스바냐서가 12소예언서에서 개별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고 보았다. 이들은 3권의 예언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심판에 초점'), 형식에 대한 분석('캐치워드', '문학적 일관성'), 구조에 대한 분석('신정론 중심의 교차대구법 구조'), 정경적 위치에 대한 분석('하박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3권의 예언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형식이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의 분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3개의 예언서의 메시지의 연관성이다. 주전 620년 전후의 가장 논

7 Duane L. Christensen, "The Book of Nahum: A History of Interpretation", James W. Watts and Paul R. House(eds.), *Forming Prophetic Literature* (JSOTSup 23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87-194.

8 Joseph A. Everson, "The Canonical Location of Habakkuk",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t(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165-174.

쟁거리가 되었던 ‘악인의 심판의 문제’(하박국서와 나훔서)와 소위 ‘믿음 없는 의인의 문제’(하박국서와 스바냐서)⁹에 대해 3권의 예언서가 공유하고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전 620년 전후의 유다 백성들의 고민을 담고 있는 하박국의 2번의 불평과¹⁰ 야웨의 2번의 답변을 중심으로 3권의 예언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나훔서는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야웨의 첫 번째 답변(‘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에 대해 보충하고 있으며, 스바냐서는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야웨의 두 번째 답변(‘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해 보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¹¹ 이렇게 함으로써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의 총 9개의 장은 하나의 유닛으로써 읽혀져야 하고, 주전 620년 전후 백성들의 탄식과 불평에 대한 야웨의 위로와 답변을 위해 쓰인 위로서와 답변서임을 주장할 것이다.

2.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의 메시지의 연관성

1) 나훔서와 하박국서의 연관성

여기에서는 나훔서와 하박국서의 메시지 분석을 통해 나훔서가 하

9 예레미야 3장 6-10절은 요시아 시대 유다의 형식적인 신앙을 잘 보여준다. 배희숙, “스바냐와 요시아 개혁: 요시아 개혁에 대한 예언적 관점”, 『성경원문연구』 49집 (2021년 10월), 86-89 참조.

10 예레미야스(Jörg Jeremias)는 하박국의 불평을 당시 백성들의 불평이라고 보았다. Jörg Jeremias, *Kulprophetie und Gerichtsverkündigung in der späten Königszeit Israel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99.

11 3권의 예언서의 연관성을 위해 유윤중, “12예언서 내 스바냐의 정경적 위치와 그 함의”, 『성경원문연구』 51집 (2022년 10월), 106; 박경철, 윗글 (2017), 28 참조.

박국의 첫 번째 불평 및 야웨의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¹² 이것을 위해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을 먼저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나훔서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3개의 개념(‘보복하시는 하나님’, ‘니느웨의 멸망’, ‘열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할 것이다.

(1)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

하박국 1장 2-11절의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은 주전 7세기에 악인으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고민과 갈등을 담고 있다. 당시 백성들의 악인으로 인한 탄식과 갈등이 하박국의 입을 빌어 불평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¹³ 그러면 악인이 누구인가? 일부 학자들은 악인을 이방 민족과 연결하기도 하고,¹⁴ 또한 유다 지도자들과 연결하기도 한다.¹⁵ 주전 7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둘 다 가능성은 있

-
- 12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나훔서가 “니느웨의 몰락이 야웨가 하신 일임을 강조하며 야웨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유다 청중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나훔서가 하박국의 불평(‘야웨의 악인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야웨의 답변임을 고려하게 한다. 마빈 A. 스위니, 「예언서」(홍국평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46. 원제는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13 John D. W. Watts,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124.
- 14 Otto Eissfeld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65), 419-420.
- 15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89; Kenneth L. Barker and Waylon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298;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2: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Haggai, Zechariah, Malachi*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455;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 「나훔-말라기」(민경진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69. 원제는 Elizabeth Achtemeier, *Nahum-Malachi*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랄프 스미드, 「미가-말라기」(채천석, 채훈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148. 원제는 Ralph L. Smith, *Micah-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1984).

다. 그러나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를 연결하여 읽는다면 악인은 내부의 적(‘여호야김 왕’)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적(‘앗수르’)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것은 하박국의 불평과 야웨의 답변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불평한다. ‘야웨여 내가 부르짖어도 당신이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2a절).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해졌나이다’(4ba절). 야웨의 무관심으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정의가 사라져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의 헤이함이 성행하는데도 야웨께서 무관심하다고 하박국은 탄식하며 불평한다.¹⁶ 이러한 불평에서 인상적인 것은 ‘언제까지입니까?’(מַה־עַד־יָבוֹא־הַיְיָ)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오랜 기간 핍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간의 문제는 악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단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앗수르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전 701년에는 남유다를 침략하였으며, 주전 612년 니느웨가 함락될 때까지 오랫동안 남유다를 억압하였다. 역사적으로 100여 년 동안 앗수르는 남유다를 핍박한 최고의 대적이었다.¹⁷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앗수르의 핍박에 대해 하박국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야웨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악인을 유다의 지도자들 중의 하나(‘여호야김 왕’)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 하박국이 야웨께 불평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웨의 답변을 고려한다면 악인을 ‘앗수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야웨는 하박국의 불평(‘악인의 의인에 대한 핍박’)에 대해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אֶת־הַכּוּשִׁיִּים־אֶקְוֶה־בָּאֵלֶיךָ 6aa절)라고 답변한

16 메이슨(Rex Mason)은 ‘율법의 헤이함’이 유다의 내적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방인에 의한 율법의 파기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Rex Mason, *Zephaniah, Habakkuk, Jo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86.

17 스미드(Ralph L. Smith)는 앗수르의 왕 산헤립, 에살하돈, 앗수르바니팔의 시대에 유다와 유다의 왕들이 앗수르 제국과 앗수르의 이방 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랄프 스미드, *윗글*, 178-179.

다. 한마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웨께서 갈대아 사람/바벨론을 일으켜 심판한 나라는 앗수르와 남유다이다. 그런데 만약 악인이 남유다의 지도자라면 야웨의 답변은 하박국에게 적당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이 남유다의 지도자(악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선한 백성(의인)을 비롯해 남유다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다. 몇 명의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백성을 희생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하박국은 강포와 패역과 겁탈 등으로 인해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야웨께 탄원하였다. 그런데 갈대아가 남유다의 지도자를 심판하기 위해 남유다의 모든 백성을 친다면 다시 갈대아 사람으로 인해 백성들은 강포와 패역과 겁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악인을 남유다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시킨 ‘앗수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¹⁸ 이러한 주장은 나훔서와 하박국서를 연결하여 읽는다면 더 분명해진다.

(2) 나훔서의 답변: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 및 야웨의 답변에 대한 보충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은 ‘악인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악인(‘앗수르’ 혹은 ‘유다 지도자’)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야웨께서 ‘갈대아 사람/바벨론’을 일으켜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 답변했는데, 하박국서의 어느 곳에서도 갈대아 사람을 통한 악인의 심판이 언급되지 않는다.¹⁹ 오히려 하박

18 아이스펠트(Otto Eissfeldt)는 하박국 1장 6절에서 야웨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악인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기에 오직 앗수르만이 악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은 하박국이 나훔과 거의 동시대 인물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Otto Eissfeldt, *유태*, 419-420.

19 하박국서는 ‘갈대아 사람/바벨론’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언급하지만(합 2:5-20), ‘앗수르’나 ‘남유다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야웨에 의한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 Theodore Hiebert, “The Book of Habakkuk”, Leander E. Keck et al. (eds.), *The*

국서와 동시대의 작품인 나훔서에 갈대아 사람을 통한 악인(‘앗수르’)의 심판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마치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실행되는 것처럼 나훔서에 니느웨(‘앗수르의 수도’)의 멸망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나 2:8-10).²⁰ 앞에서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나훔서와 하박국서와 스바냐서가 내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²¹ 특별히 나훔서에 언급된 3가지 개념(‘보복하시는 하나님’, ‘니느웨의 멸망’, ‘열방’)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① 보복하시는 하나님

첫째는 ‘보복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개념이다(나 1장). 이것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야웨의 답변을 보충하는데, 적합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보복이라는 개념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도 야웨께서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면서 악인의 심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나훔서가 마침 보복의 개념을 사용해 야웨께서 악인 앗수르에게 보복하심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보복이라는 개념은 나훔과 하박국의 연관성을 위한 핵심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나훔 1장은 3단계 전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²²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646-649 참조.

- 20 스미스(J. M. P. Smith)는 ‘나훔서 전체가 적에 대한 승리의 찬가이며 환희에 찬 복수를 강조한다’고 보았다. J. M. P. Sm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Micah, Zephaniah, Nabum, Habakkuk, Obadiah and Joel* (Edinburgh: T & T Clark, 1911), 280-281.
- 21 로버츠(J. J. M. Roberts)는 ‘나훔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불의와 억압을 결코 놔두지 아니하고 처벌하는 정의의 신으로 야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르끌루(Jason T. LeCureux)는 ‘하박국의 탄원이 12소예언서에 언급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야웨의 행위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J. J. M. Roberts, *윗글*, 39; Jason T. LeCureux, *윗글*, 164.
- 22 윤동녕, “나훔서에 등장하는 구원신탄의 요소들”, 『구약논단』 46집 (2012년 12월), 157-162 참조.

1단계는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악인의 심판을 강조한다(2절). ‘야웨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יהוה נקם ונקם 2aα절). ‘야웨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יהוה ובעל חמה נקם 2aβ절). ‘야웨는 그의 적들에게 보복하신다’(יהוה לזריו נקם 2bα절). 이처럼 2절은 ‘야웨가 보복하신다’(יהוה נקם)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 사용하여 야웨께서 악인의 악행을 그대로 되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반복은 구약 예언서에서 볼 수 없는 나훔서만의 독특한 표현이다.²³ 악인의 심판에 무관심하다는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반박인 것이다. 2단계는 야웨께서 악인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다(3-7절). ‘야웨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권능이 크시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3절). ‘누가(מי)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מי)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6a절). 야웨께서 권능이 크고,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의지가 있기에 누구도 그의 보복/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히 의문대명사 מי(미/누가)를 2번이나 반복 사용하여 보복 의지를 가진 야웨의 결단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박국의 불평이 그릇되었음을 지적한다. 3단계는 야웨의 보복으로 인한 악인의 진멸을 강조한다(8-15절). 능력과 보복의 의지를 가진 야웨께서 악인을 진멸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4번의 유사한 표현을 통해 열거된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온전히 멸하리라’(וּבְשֹׁטָף עֲבַר כָּל־הָאֲרָצָה וַיַּעַשׂה מְקוֹמָהּ 8aα절). ‘너희가 야웨에 대항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리라’(וְתִשְׁבְּנוּ אֶל־יְהוָה כָּל־הוּא עֲשָׂה 9a절).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온전히 탈 것이라’(וְכָשׁ וְיָבֵשׁ מְלֵא 9aβ절).

23 물론 נקם(나감/보복하다)이라는 동사를 이사야서(1:24), 예레미야서(5:9, 29: 9:9; 15:15; 46:10; 50:15; 51:36), 에스겔서(24:8; 15:12[2번], 15)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예언서도 하나의 구절에서 나훔서만큼 נקם을 반복하여 야웨의 보복 의도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אָפּלוּ 10b절). ‘네 신들의 집으로부터 내가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리라’(וּמְסָכָה פֶּסֶל וּמִבֵּית אֱלֹהֵיךָ אֲכַרִּית 14b절).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야웨의 온전한 심판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그가 온전히 멸절하리라’(8a2절, 9a절), ‘그들이 온전히 탈 것이라’(10b절), ‘내가 멸절하리라’(14b절)와 같은 표현들은 의도적인 것으로 야웨의 보복성을 부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께서 악인의 심판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진멸과 함께 의인에 대한 야웨의 관심으로 마무리된다. ‘악인이 온전히 멸절되었으니(בְּלֵעַל כָּלֵה נִכְרַת),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15b절[MT 2:1b]).

② 니스웨의 멸망

둘째는 니스웨의 멸망과 관련된 개념이다(나 2장). 이것은 나훔 2장에 잘 드러난다. 나훔 1장에서 보복과 관련된 개념을 통해 하박국의 불평(당시 백성들의 불평)에 답변했다면, 나훔 2장에서는 보복의 결과로 니스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하박국의 불평에 답변한다. 야웨의 심판/보복 의지가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훔 2장의 니스웨의 멸망에 대한 묘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²⁴ 한마디로 나훔서가 니스웨의 함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하박국의 입을 빌어 강조된 당시 백성들의 불평에 답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3단계의 전개를 볼 수 있다.

1단계는 니스웨의 심판에 대한 야웨의 의도를 강조한다(1-2절[MT

24 강성열, 「나훔·하박국·스바냐 해설서: 열방을 향한 공의」(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8), 32. 스위니는 “니스웨 함락에 대한 묘사는 야웨가 세상의 참 주권자임과 야웨가 열국의 학대자 니스웨를 심판할 것임을 주장하는 책의 수사적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마빈 A. 스위니, 윗글, 246.

2:2-3)). 야웨께서 악인의 심판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유 접속사 כִּי(키/왜냐하면)를 통해 강조된다. 먼저 이 단락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1a절)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야웨께서 니스웨를 심판하고자 ‘파괴하는 자’를 보냈다는 것이다.²⁵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야웨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려 함이라’(שָׁב כִּי יְהוָה אֶת־נְאוֹן יַעֲקֹב כְּנְאוֹן יִשְׂרָאֵל) 2a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라’(וְחָתְּמֵם בְּקִקְיָם וּזְמִירָהִם כִּי בְּקִקְיָם בְּקִקְיָם 2b절). כִּי를 2번이나 사용하여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 이유를 야웨의 의도와 결부 짓는다. 한마디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고 악인에게 보복하기 위한 야웨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악인의 심판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다는 야웨의 답변인 것이다. 2단계는 니스웨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3-10절(MT 2:4-11)). 야웨의 의도에 따라 이제 니스웨가 멸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 강조된다(3-5절). 특별히 4절은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라고 말한다. 병거의 속도감을 통해 파괴자가 니스웨를 함락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력함으로 니스웨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이다. 10절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공허하고, 공허하고, 황폐하도다. 마음이 녹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모든 허리가 아프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지리라.’ 유사한 표현(‘공허하다’[2번], ‘황폐하다’)을 사용하여 니스웨의 외적인 파괴를 강조하고, 마음과 무릎과 허리와 얼굴의 문제를 통해 니스웨 백성들의 내적인 고통과 파괴를 강조한다.²⁶ 어느 하나 온전한 것 없이 완전히 파괴된다

25 Marvin A. Sweeney, *윳골*, 437; 정미혜, “예레미야서 37-39장에 나타난 시드기야의 정치 세력”, 『구약논단』 90집 (2023년 12월), 354-355 참조.

26 윤영준, “나훔서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과의 관계를 중심

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철저한 보복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3단계는 야웨께서 손수 악인의 대적이 되어 심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1-13 절(MT 2:12-14)). 야웨께서 앞장서서 악인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불지어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리라. 만군의 야웨의 말이니라’(אֲנִי יְהוָה זְבַאוֹת) 13aα절). 야웨께서 악인의 대적이 되어 직접 심판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특별히 ‘만군의 야웨’라는 표현은 전쟁과 관련해 대적을 심판하는 야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야웨의 심판 의지와 개입을 강조한다.²⁷ 이러한 야웨의 의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1인칭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내가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리라’(בְּעֶשֶׂן) 13aβ절). ‘내가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라’(הִכְרַתִּי) 13bα절). ‘그리하여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리라’(13bβ절). 1인칭 표현(‘내가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리라’, ‘내가 끊으리라’)을 통해 야웨의 직접적인 심판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야웨께서 악인의 심판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니느웨의 멸망과 관련된 3단계 묘사는 하박국(주전 620년 전후 백성들)의 탄식과 불평에 대한 답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열방

셋째는 열방과 관련된 개념이다(나 3장). 나훔 1장에서 야웨의 보복을 강조하고, 나훔 2장에서 야웨의 보복을 통한 니느웨의 멸망을 강조했다면 나훔 3장에서는 열방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니느웨의

으로”, *Canon & Culture* 15권 1호 (2021년 봄), 132-136 참조.

27 Kenneth L. Barker and Waylon Bailey, 윗글, 214-215.

치욕을 강조한다.²⁸ 열방을 압제한 니느웨가 이제 열방을 통해 치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심판을 넘어서 이들의 치욕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나훔 3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3단계의 전개를 볼 수 있다.

1단계는 열방을 꺾박한 앗수르에 대해 다룬다(1-4절). 앗수르가 심판받은 이유가 열방을 꺾박해서라는 것이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1절). 4개의 악행과 관련된 외적인 표현(피, 거짓, 포악, 탈취)을 사용하여 열방에 행한 앗수르의 죄악을 부각한다. 열방의 백성들을 살해하고, 그들에게 거짓과 포악을 행하고, 그들의 물질을 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앗수르는 열방의 치욕의 대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 외에도 4절은 이들이 종교적 악행을 행했음을 강조한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많이 행하니라. 그녀가 그녀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녀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 나라’(רַיָּה)와 ‘여러 족속’(תַּיְהוּדִי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앗수르의 종교적 악행이 열방과 관련됨을 지적한다. 외적으로는 주변국을 꺾박하고, 내적으로는 주변국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악행을 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이기에 앗수르가 치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2단계는 열방 가운데 치욕을 당한 앗수르에 대해 다룬다(5-7절). 아웨게서 앗수르를 열방 가운데 치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열방이 앗수르의 심판을 목격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웨의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1인칭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리라(וְאֲנִי אֶלֶיךָ 5a2절). 앞에서 언급된 표현이 여기

28 보트(Lawrence Boadt)는 나훔 3장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신학적 반영’이라고 보았다. Lawrence Boadt, *Jeremiah 26-52, Habakkuk, Zephaniah, Nahum*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2), 238.

에서 다시 나타난다. 야웨께서 악인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²⁹ 이러한 야웨의 의지는 앗수르의 치욕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5개의 1인칭 동사가 사용된다. ‘내가 너의 치마를 너의 얼굴까지 걷어 올리리라’(עַל־פְּנֵיךָ שׁוּלְיִיךָ 5aβ절). ‘내가 너의 벌거벗음을 나라들에게, 너의 부끄러움을 왕국들에게 보이리라’(וּמַמְלֻכּוֹת קְלוֹנֵךָ מֵעֵרָךְ הִרְאִיתִי גוֹיִם 5b절). ‘내가 네 위에 가증한 것을 던지리라’(הִשְׁלַכְתִּי עָלֶיךָ שְׂקִיצִים) 6a¹⁻³절). ‘내가 너를 능욕하리라’(בְּפִלְתִּיךָ 6a⁴절). ‘내가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כִּרְאִי שְׂמִתִּיךָ 6b절). 단순한 심판에 머무르지 않고 앗수르를 열방 가운데 치욕 거리로 만들겠다는 야웨의 의지의 표현이다.³⁰ 이러한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 야웨께서 악인의 심판에 무관심하지 않다고 하박국의 불평에 답변하는 것이다. 3단계는 멸망한 열방의 한 도시를 예로 들어 니스웨의 멸망에 대해 다룬다(8-19절). 강력했던 애굽의 노아몬(테베)이 망한 것처럼 강력한 니스웨도 망한다는 것이다. 8-10절은 노아몬의 약탈과 파괴의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이것을 통해 니스웨도 동일하게 약탈을 당하고 파괴될 것을 암시한다. 특별히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אֲמוֹן מִנָּא הֲתִיטְבִי 8aα절)라는 수사적 질문은 니스웨의 심판에 대한 야웨의 의지를 강조한다. 절대로 니스웨가 야웨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니스웨의 연약함을 풍자하는 비유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산성’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비유되고(12절), ‘백성’은 나약하고 폭력에 노출된 여성으로 비유되며(13절), ‘부와 경제력’은 쉽게 날아가는 느치에 비유되고(16절), ‘방백과 장수’는 쉽게 사라지는 큰 메뚜기 떼에 비유된다(17절). 이러한 비유를 통해 강대

29 Francisco O. García-Treto, “The Book of Nahum”, Leander E. Keck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614.

30 Kenneth L. Barker and Waylon Bailey, 윗글, 226.

국 앓수르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웨의 심판 앞에서 잠시도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열방을 호령했지만, 이제는 열방에게 치욕을 당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장송곡 형태로 한 번 더 강조된다. ‘앗수르 왕이여 …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들은 모든 자가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너의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18-19절). 열방에 대한 앓수르의 행패가 야웨의 심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것이 앓수르의 멸망과 치욕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열방’과 관련된 3단계 묘사를 비롯해 ‘보복하시는 하나님’과 ‘니느웨 멸망’과 관련된 묘사들은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³¹

2) 하박국서와 스바냐서의 연관성

여기에서는 하박국서와 스바냐서의 메시지 분석을 통해 스바냐서가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 및 야웨의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³² 이것을 위해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을 먼저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스바냐서의 메시지를 3개의 개념(‘야웨의 날’, ‘남은 자’, ‘회복’)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할 것이다.

31 윤동녕은 “나훔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윤동녕, *윳글*, 167.

32 노갈스키는 ‘스바냐서가 하박국 3장 16b절에서 암시하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묘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며 둘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James D. Nogalski, *윳글* (1993. 7), 199.

(1)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은 하박국 1장 12절-2장 4절에 언급되는데, 거룩하신 야웨와 백성의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거룩하신 야웨께서 믿음 없는 백성(악인)이 믿음의 백성(의인)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갈대아 사람이 유다를 핍박하는데 야웨께서 무관심할 수 있냐는 탄식과 불평이다.³³ 이러한 불평의 정당성을 위해 하박국은 야웨를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한다. ‘야웨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יְהוָה אֱלֹהֵי קָדְשִׁי 12aβ절). ‘당신은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나이다’(טְהוֹר עֵינַיִם מִרְאוֹת רָע וְהַבֵּיט אֶל-עֲמָל לֹא תוֹכֵל 13a절). 하박국은 야웨의 거룩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불평을 위한 정당성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악인에 대한 야웨의 무관심에 대하여 탄식하며 불평한다. ‘어찌하여 당신은 거짓된 자들을 보고만 계시며(לָמָּה תִּבְטֵיט בְּוֹנֵי־ים), 당신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תְּחַרֵּישׁ בְּבָלַע רֶשֶׁע צְדִיק מִמֶּנּוּ 13b절). 하박국은 악인을 בְּוֹנֵי־ים(보게담/거짓된 자)으로 묘사한다. 구약 예언서에서 ‘보게담’은 야웨를 배반한 자(사 24:16; 48:8; 렘 3:8, 11; 5:11; 12:1; 호 5:7; 6:7)라는 뜻으로 사용된다.³⁴ 야웨를 배반한 믿음 없는 자로 악인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하박국의 탄식과 불평은 거룩하신 야웨께서 ‘믿음 없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도 무관심하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야웨를 거룩하신 분으로, 악인을 믿음 없는 자로, 의인을 믿음 있는 자로 묘사

33 Theodore Hiebert, 윗글, 638.

34 Seth Erlandsson, “בָּגַדְדִּים bāghadh”,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7), 470-473;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46집 (2012년 12월), 106 참조.

하는 것이다.³⁵

이러한 하박국의 탄식과 불평에 대해 야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הַיִּתְיָוִם בְּאֱמוּנָתוֹ חַיֵּה וְלֹא יִרְאָה חַפְזֵי מוֹתָוָה 합 2:4b).³⁶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박국이 의인이라고 주장한 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다.³⁷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인이 악인을 통해 꺾박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야웨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지만(합 2:3), 의인으로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박국서는 의인으로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에 관해 설명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하박국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에 대한 설명이 하박국서 다음에 배치된 스바냐서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³⁸ 이런 점에서 스바냐서는 야웨의 답변(‘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스바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35 Kenneth L. Barker and Waylon Bailey, *위글*, 314.

36 자세한 논의를 위해 김상기, “묵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하박국 2:4-5상반”, 『성경원문 연구』 54집 (2024년 4월), 58-79; 노세영, 「나훔·하박국·스바냐」 (성서주석 2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34-235 참조.

37 Kenneth L. Barker and Waylon Bailey, *위글*, 326 참조.

38 Daniel C. Timmer, *The Theology of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218.

(2) 스바냐서의 답변: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 및 아웨의 답변에 대한 보충

스바냐서는 철저히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다룬다.³⁹ 스바냐 1장 4-6절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자들 위에 손을 펴서, 내가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함께 그 제사장들을, 지붕에서 하늘의 못벌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아웨에게 맹세하며 경배하면서도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들을, 아웨를 등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아웨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라].’ 이와는 달리 스바냐 3장 1-4절은 유다 지도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⁴⁰ ‘화 있을진저 궤역하고, 더러운 곳, 포박한 그 성읍이여 …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곳의 재판장들은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그곳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곳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러한 죄악은 주전 622년 요시야 왕(주전 640-609년)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의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믿음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⁴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백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상황이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에 대한 아웨의 답변(‘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2:4b)과 일치되고 있다. 당시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문제

39 스바냐서의 구조를 위해 Nicholas R. Wense, “Reconsidering the Problematic Tripartite Structure of Zephaniah”,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30 (2018), 571-585 참조.

40 Rex Mason, *윳글*, 56-57.

41 스바냐서의 배경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주전 609-598년)로 고려하기도 한다. Lawrence Boadt, *윳글*, 201.

가 하박국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바냐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두 권의 예언서가 동시대 작품이며, 서로 연속하여 배치되어 있기에 스바냐서가 하박국서의 믿음의 문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둘 사이의 연관성을 스바냐서에 강조되는 3개의 개념(‘야웨의 날’, ‘남은 자’, ‘회복’)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① 야웨의 날

첫째는 야웨의 날 개념이다.⁴² 이 개념이 악인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하박국의 불평과 연결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도 무관심하다’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야웨의 답변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었다. 하박국은 야웨의 무관심을 강조하였고, 야웨는 믿음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통해 악인의 심판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할 뿐, 의인과 관련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바냐서에서 악인의 심판과 믿음의 문제가 ‘야웨의 날’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스바냐서에 언급된 3번의 야웨의 날(슌 1:7-13; 1:14-18; 2:1-3) 개념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야웨의 날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스바냐 1장 7-13절에 나타나는 데, 여기에서는 야웨의 날에 심판받을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심판의 대상이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 ‘야웨의 희생의 날에(יְהוָה יִבְרַח יוֹם)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יִבְרַח יוֹם)

42 임효명, “생태 위기 시대에 성서 읽기: 스바냐의 야웨의 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372-401 참조.

8절). ‘그날에(בְּיוֹם הַהוּא) 내가 문턱을 뛰어넘은 모든 자들, 즉 포악과 거짓으로 그들의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יִתְקַדֵּם 9절). ‘그때에(בְּעֵת הַהוּא) … 내가 … 그들의 마음속에 아웨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벌하리라’(יִתְקַדֵּם 12절). 여기에서 2가지를 볼 수 있다. 하나는 반복법이다. 3개의 시간 부사(‘아웨의 희생의 날에’, ‘그날에’, ‘그때에’)를 반복 사용하여 심판의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아웨를 1인칭 주어로 하는 ‘내가 벌하리라’(יִתְקַדֵּם)는 동사를 3번 반복 사용하여 아웨의 적극적인 심판 의지를 강조한다.⁴³ 하박국의 불평과 연결하여 보면, 아웨가 절대로 악인의 심판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심판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이다. 심판의 대상으로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아웨께서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열거된다.⁴⁴ 이처럼 다양한 대상이 열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당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⁴⁵ 한마디로 아웨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웨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아웨의 날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스바냐 1장 14-18절에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아웨의 날의 임박성과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⁴⁶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웨의 날의 임박성이다. ‘가깝도다. 아웨의 위대

43 Marvin A. Sweeney, *Zephan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75.
 44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배희숙, 윗글 (2021), 82-84 참조.
 45 Steven Tuell, *Reading Nabum-Malachi*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2016), 120; Daniel C. Timmer, 윗글, 196.
 46 Lawrence Boadt, 윗글, 213.

한 날이, 가깝도다. 매우 빠르도다’(14a절). 심판의 날이 더디지 않다는 것이다. 심판의 날이 빠르게 임한다는 것이다. 하박국의 불평은 심판의 지연 및 심판에 대한 야웨의 무관심이었다. 그런데 야웨의 날 개념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조한다. 절대로 야웨께서 심판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야웨의 날의 성격이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다’(15-16a절). 6개의 표현을 열거하여 야웨의 날의 성격을 강조하는데, 철저하게 파괴의 날임을 강조한다. 특별히 앞의 3개는 실질적인 표현으로 ‘분노’는 악인에 대한 보복의 성격과 관련되고, ‘환난과 고통’은 악인의 내적인 상황과 관련되며, ‘황폐와 폐망’은 악인의 외적인 상황과 관련된다. 어느 한 부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야웨의 날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은 스바냐 2장 1-3절에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믿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⁴⁷ 하박국의 불평에 야웨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답변했는데, 야웨가 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2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야웨의 날이 임하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처럼 (속히) 지나가기 이전에, 야웨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이전에, 야웨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내리기 이전에’(2절)라는 유사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 사용하여 백성들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강조한다. 의인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다. 야웨의 날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

47 스위니는 이 단락이 스바냐서의 핵심(the formal core)이며, 스바냐서의 기본적 권고 연설이라고 보았고, 악트마이어(Elizabeth Achtemeier)도 이 단락이 스바냐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보았다. Marvin A. Sweeney, 윗글 (2003), 111; Marvin A. Sweeney, 윗글 (2000), 510;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 윗글, 122 참조.

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야웨를 찾으라(אֱלֹהֵי יְהוָה בְּרָצוֹן). 그의(주님의) 정의(צְדִיקָה)를 행하는 그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공의를 찾으라(בְּרָצוֹן צְדִיקָה). 겸손을 찾으라(בְּרָצוֹן עֲנָוָה). 아마도 너희는 야웨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3절). 여기에서 3가지의 믿음의 내용을 볼 수 있다.⁴⁸ ‘야웨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야웨를 찾으라’는 명령은 당시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였던 스바냐 1장 4-6절과 연결되는데, 이 단락에 기초하여 해석하면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야웨를 의지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으라’는 명령은 지도자들의 죄악을 열거하였던 스바냐 3장 1-4절과 연결되는데, 이것에 기초하여 해석하면 포학 가운데 놓인 약자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부족했던 믿음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의인이 되고, 이러한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전 620년 전후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에 야웨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답변했던 것이다.

② 남은 자

둘째는 남은 자 개념이다. 남은 자의 구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개념은 야웨께서 의인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답변 역할을 한다. 하박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 무관심하다’라며 불평하였고, 야웨는 하박국에게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확고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야웨의 의인에 대한 구

48 유윤중은 스바냐서를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시대를 암시하는 책”으로 보고, 이 3가지의 명령을 “포로를 위한 삶의 메시지”라고 보았다. 유윤중, 윗글, 106-110.

원 행위가 하박국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⁴⁹ 오히려 하박국서와 동시대의 작품이며 이어지는 스바냐서에 의인의 구원이 남은 자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⁵⁰ 이렇게 볼 때 스바냐서에 언급된 남은 자 개념은 의인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보충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스바냐서에 언급된 3번의 남은 자(슘 2:4-7, 8-10; 3:9-13) 개념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남은 자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스바냐 2장 4-7절에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야웨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데, 2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야웨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뿔히리라 … 내가 너를 멸하여 거주자가 없게 하리라’(4-5bβ절). 여기에 언급된 블레셋의 4개의 도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인 악인으로 간주되었다.⁵¹ 스바냐서는 야웨를 1인칭 주어로 하는 ‘내가 너를 멸하리라’(אֲנִי מְאַחֵדָה)는 동사를 사용해 야웨께서 악인을 주도적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박국의 불평과 연결하여 보면, 블레셋의 심판은 야웨께서 악인의 심판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하나의 예시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야웨께서 남은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 땅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리라. 거기에서 그들이 양을 치고, 저녁에는 그들이 아스글론의 집에서 누우리라. 이는(יְיָ) 그들의 하나님 야웨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기 때문이라’(7절). 악인의 심판 이후에 그들의 땅이 남은 자에게 주어져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이유 접속사 יְיָ(키/왜냐하면)를 사용하여 야웨의 남

49 단지 하박국의 기도에 ‘구원과 관련된 언급’(합 3:13)이 나타날 뿐이다.

50 김창대, 윗글, 276.

51 Marvin A. Sweeney, 윗글 (2000), 515.

은 자에 대한 관심을 부각하는데, 특별히 ‘그들의 하나님’(אלהיהם)이라는 표현을 통해 야웨와 그들의 관계성을 부각하고, ‘그가 그들을 돌보다’(דָּבַר)와 ‘그가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다’(שָׁבַת שְׁבוּתָם)라는 표현을 통해 남은 자의 미래를 예비하는 분으로 야웨를 강조한다. 절대로 야웨께서 의인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예시인 것이다.

남은 자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스바냐 2장 8-10절에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야웨와 남은 자의 관계성 및 남은 자에 대한 야웨의 관심이 강조된다.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야웨와 남은 자의 관계이다. 야웨는 남은 자를 ‘나의 백성’(עַמִּי 8bα절) ‘나의 백성 남은 자들’(עַמִּי שְׂאֲרֵית 9bβ절), ‘만군의 야웨의 백성’(עַם יְהוָה צְבָאוֹת 10bβ절)으로 부른다. 이러한 언약적 표현은 야웨와 남은 자가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야웨에게 남은 자가 절대로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박국과 당시 사람들은 야웨가 의인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은 자에 대한 야웨의 관심이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기에 야웨는 남은 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שָׁמַעְתִּי 8a절). ‘그리하여(לָכֵן) … 모압은 소돔처럼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9aβ절).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야웨께서 남은 자에게 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하여’라는 접속사와 소돔과 고모라 모티프를 통해 남은 자를 휩박한 악인의 심판을 강조한다.⁵² 야웨께서 절대로 남은 자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10b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된다. ‘이는(כִּי) 그들(모압과 암몬)이 만군의 야웨의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 야웨의 심판 이유가 철저하게 남은 자

52 Steven Tuell, *윳글*, 129.

와 관련됨을 강조한다.⁵³ 의인에 대한 야웨의 관심 표명인 것이다.

남은 자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은 스바냐 3장 9-13절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남은 자는 야웨에 의해 온전히 변화된 자로 묘사되는데, 2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남은 자를 변화시키는 야웨의 의지에 관한 것인데, 1인칭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내가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תְּכַתֵּם 9a절). ‘이는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אֲסִיר בְּקִרְבִּי 11ba절). ‘내가 네 가운데 곧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놓으리라’(אֶשְׁאַרְתִּי הַנְּקִיִּים 12a절). 야웨께서 직접 남은 자들에게 관여해 그들의 말과 교만과 지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네 가운데’(בְּקִרְבִּי)라는 표현은 야웨가 백성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지켜보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야웨의 은혜로 인해 남은 자에게 일어날 변화를 강조한다. 첫째는 신앙적 변화이다. ‘그들 모두가 야웨의 이름을 부르고, 한가지로 [야웨를] 섬기리라’(9b절). ‘구스 강 건너편으로부터 … 내가 흠은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10절). 위에서 언급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야웨의 답변과 연결해 보면, 이제 남은 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⁵⁴ 야웨의 이름을 부르고, 야웨를 섬기고, 야웨에게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 외에도 그들이 외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거짓된 혀가 발견되지 않으리라’(13a절). 외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

53 Daniel C. Timmer, *읽글*, 199.

54 김창대는 ‘하박국서가 남은 자의 특징을 성실(믿음)로 규정한다’라고 보았다. 김창대, *읽글*, 276.

한 변화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다.⁵⁵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야웨의 답변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바냐서는 하박국서가 다루지 않은 믿음의 문제와 믿음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회복

셋째는 회복의 개념이다. 스바냐서를 마감하는 3장 14-20절은 회복의 개념을 다루는데, 하박국의 불평과 연결해 보면, 그의 불평에 대한 종합적 정리라고 볼 수 있다. 하박국의 불평은 야웨께서 악인을 심판하지도 않고, 의인을 돌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2가지에 대한 불평을 이 단락은 정리하고 있다.⁵⁶ 첫째로 악인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정리한다. ‘야웨가 … 너의 적을 쫓아냈다’(15a절). ‘이스라엘 왕 야웨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15b절).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억누르는 모든 자들 벌하리라’(19a절). 야웨를 주어로 하는 표현(‘야웨가 쫓아냈다’, ‘이스라엘 왕 야웨가 네 가운데 계시다’)과 야웨를 1인칭 주어로 하는 표현(‘내가 벌하리라’)을 사용해 야웨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심을 강조한다. 야웨께서 악인의 심판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답변인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 ‘너의 적’과 ‘너를 억누르는 모든 자’라는 2인칭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이유가 철저하게 ‘남은 자(의인)’와 관련됨을 강조한다. 의인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의인에 대한 관심을 정리한다. ‘너의 하나님 야웨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17a절). ‘내

55 Robert A. Bennett, “The Book of Zephaniah”, Leander E. Keck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699-700.

56 메이슨(Rex Mason)은 이 단락이 ‘유다 공동체의 적들의 패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방 가운데서의 명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았다. Rex Mason, *위글*, 25.

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내가 쫓겨난 자를 모으리라'(19b절).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20a절). '내가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던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19b절). '내가 그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줄 것이다'(20ba절). 이것은 남은 자에 대한 야웨의 온전한 회복의 약속인데, 야웨의 주도성을 강조한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야웨', '구원을 베푸신 야웨',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아 인도하는 야웨', '부끄러움을 바꾸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야웨.' 이러한 야웨의 주도성을 강조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통해 야웨께서 의인의 구원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회복'과 관련된 묘사를 비롯해 '야웨의 날'과 '남은 자'와 관련된 묘사들은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는 주전 620년 전후의 문서로 12소에 언서에서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의 자리에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서로의 메시지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3권의 예언서가 각각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백성들의 역사와 정치와 종교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보면 3권의 메시지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하박국의 두 번의 불평과 야웨의 두 번의 답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은 철저하게 나훔서의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도 야웨께서 무관심하다'라며 야웨께 탄식하며 불평하였고, 야웨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3개

의 장으로 구성된 하박국서의 어디에도 갈대아 사람을 통한 악인의 심판이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3개의 장으로 구성된 나훔서에 갈대아 사람을 통한 악인의 심판이 자세하게 언급되는데, 마치 하박국의 불평에 답변하듯이 3개의 개념(‘보복하시는 하나님’, ‘니느웨의 멸망’, ‘열방’)이 사용되어 야웨의 보복에 의한 악인의 심판이 강조된다. 이런 점에서 나훔서는 하박국의 불평과 야웨의 답변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은 철저하게 스바냐서의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박국은 ‘거룩하신 야웨께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도 무관심하다’라며 불평하였고, 야웨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야웨를 거룩한 분으로, 악인을 믿음 없는 자로, 의인을 믿음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과 믿음의 문제가 3개의 장으로 구성된 하박국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박국서의 뒤에 배치되어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스바냐서에 유대인들의 거룩과 믿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3개의 개념(‘야웨의 날’, ‘남은 자’, ‘회복’)을 통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스바냐서는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야웨의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메시지의 연관성은 나훔서-하박국서-스바냐서가 주전 620년 전후의 백성들의 탄식과 불평에 대한 답변서이며 위로서임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강성열, 「나훔·하박국·스바냐 해설서: 열방을 향한 공의」(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8).

구자용, “12 소예언서의 이방민족들: 이방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1집 (2019년 3월), 54-91.

- 김상기, “묵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하박국 2:4-5상반”, 「성경원문연구」 54집 (2024년 4월), 58-79.
-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나는 12예언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
- 노세영, 「나훔·하박국·스바냐」 (성서주석 2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랄프 스미드, 「미가-말라기」 (채천석, 채훈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원제 Smith, Ralph L., *Micah-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1984).
- 마빈 A. 스위니, 「예언서」 (홍국평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Sweeney, Marvin A.,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박경철, “12예언서 연구의 최근동향”, 「신학사상」 147집 (2009년), 7-36.
- 박경철, “12예언서의 최종형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3집 (2017년 1월), 11-36.
-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46집 (2012년 12월), 96-122.
- 배희숙, “스바냐와 요시아 개혁: 요시아 개혁에 대한 예언적 관점”, 「성경원문연구」 49집 (2021년 10월), 75-93.
-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 「나훔-말라기」 (민경진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원제 Achtmeyer, Elizabeth, *Nabum-Malachi*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 유윤중, “12예언서 내 스바냐의 정경적 위치와 그 함의”, 「성경원문연구」 51집 (2022년 10월), 99-124.
- 윤동녕, “나훔서에 등장하는 구원신약의 요소들”, 「구약논단」 46집 (2012년 12월), 151-176.
- 윤영준, “나훔서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Canon & Culture* 15권 1호 (2021년 봄), 123-154.
- 임효명, “생태 위기 시대에 성서 읽기: 스바냐의 아웨의 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372-401.
- 정미혜, “예레미야서 37-39장에 나타난 시드기야의 정치 세력”, 「구약논단」 90집 (2023년 12월), 349-379.
- Albertz, Rainer, James D. Nogalski, and Jakob Wöhrle(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BZAW 433; Berlin: Walter de Gruyter, 2012).
- Barker, Kenneth L. and Waylon Bailey,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AC 20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 Bennett, Robert A., “The Book of Zephaniah”, Leander E. Keck et al.(eds.), *The New*

-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657-7004.
- Boadt, Lawrence, *Jeremiah 26-52, Habakkuk, Zephaniah, Nahum*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2).
- Christensen, Duane L., "The Book of Nahum: A History of Interpretation", James W. Watts and Paul R. House(eds.), *Forming Prophetic Literature* (JSOTSup 23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87-194.
- Eissfeldt, Otto,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65).
- Erlandsson, Seth "בַּגְּדָדִי bāghadh",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7), 470-473.
- Everson, Joseph A., "The Canonical Location of Habakkuk",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f(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165-174.
- García-Treto, Francisco O., "The Book of Nahum", Leander E. Keck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591-619.
- Hiebert, Theodore, "The Book of Habakkuk", Leander E. Keck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621-655.
- House, Paul R., *The Unity of the Twelve* (JSOTSup 97; Sheffield: Almond Press, 1990).
- House, Paul R., "Dramatic Coherence in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James W. Watts and Paul R. House(eds.), *Forming Prophetic Literature* (JSOTSup 23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95-208.
- Jeremias, Jörg, *Kulprophetie und Gerichtsverkündigung in der späten Königszeit Israel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 LeCureux, Jason T., *The Thematic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 (HBM 4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2).
- Mason, Rex, *Zephaniah, Habakkuk, Jo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Nogalski, James D., *Literary Precursors to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 Nogalski, James D., *Redactional Processe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8;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 Nogalski, James D. and Marvin A. Sweeney(eds.),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SBLSS 15;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 Nogalski, James D., *The Book of the Twelve and Beyond: Collected Essays of James D.*

- Nogalski* (SBLAIL 29; Atlanta: SBL Press, 2017).
- Redditt, Paul L. and Aaron Scharf(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 Roberts, J. J. M.,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Smith, J. M. P.,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Micah, Zephaniah, Nahum, Habakkuk, Obadiah and Joel* (Edinburgh: T & T Clark, 1911).
-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Vol. 2: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Haggai, Zechariah, Malachi*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Sweeney, Marvin A., *Zephan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Timmer, Daniel C., *The Theology of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 Tuell, Steven, *Reading Nahum-Malachi*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2016).
- Watts, John D. W.,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Watts, James W. and Paul R. House(eds.), *Forming Prophetic Literature* (JSOTSup 23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Werse, Nicholas R., “Reconsidering the Problematic Tripartite Structure of Zephaniah”,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30 (2018), 571–585.

검색어

12소예언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하박국의 불평과 아웨의 답변

[ABSTRACT]

**Message Connections in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Focusing on Habakkuk's
Complaints and YHWH's Answers**

Rae-Yong Kim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ssage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focusing on Habakkuk's two complaints and YHWH's two responses. For this purpose, Habakkuk's two complaints and YHWH's two responses are analyzed, and based on this analysis, the content, structure, and expressions of the books of Nahum and Zephaniah are analyz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First, Habakkuk's first complaint and YHWH's answer are closely related to the messages of the book of Nahum. Habakkuk lamented and complained to YHWH, saying, 'The wicked persecute the righteous, but YHWH is indifferent.' To this, YHWH responded that he would raise up the Chaldeans to judge them. However, nowhere in the book of Habakkuk is there any mention of the judgment of the wicked through the Chaldeans. Rather, the judgment of the wicked through the Chaldeans is mentioned in detail in the book of Nahum. In this respect, the book of Nahum can be seen as reinforcing Habakkuk's complaint and YHWH's answer. Second, Habakkuk's second complaint and YHWH's answer are closely related to the messages of Zephaniah. Habakkuk complained, saying, 'Holy YHWH is indifferent when the

www.kci.go.kr

wicked persecute the righteous,' and YHW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aith, saying,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However, these issues of holiness and faith are not mentioned at all in the book of Habakkuk. Rather, the issue of Jewish holiness and faith is mentioned in detail in the book of Zephaniah, placed after the book of Habakkuk. In this respect, the book of Zephaniah can be said to be a supplementary explanation to Habakkuk's second complaint and YHWH's answer. This connection is quite possible because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were written around 620 BCE and they are placed consecutively in the Twelve Minor Prophe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will be of great help in studying the message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key words

12 Minor Prophets, Book of Nahum, Book of Habakkuk, Book of Zephaniah, Habakkuk's Complaints and Yahweh's Responses

투고일 : 2024년 07월 16일

심사일 : 2024년 08월 07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08월 12일

www.kci.go.kr